人文論叢
82권 1호
2025년 2월

서평

인문논총 82권 1호(2025. 2. 28.), pp. 439~455
[DOI] https://doi.org/10.17326/jhsnu.82.1.202502.439

실학(實學)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의 역사

조성산*

[서평] 이경구(2024), 『실학, 우리 안의 오랜 근대』, 푸른역사, 448쪽

1. 머리말

본서는 실학 개념의 역사를 논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학은 조선후기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새롭게 일어났던 학문적 흐름이다. 따라서 실학은 특정 학문 경향을 일컫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비켜나서 실학의 통시대성을 제시하면서 실학 개념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즉 본서에서 논하고 있는 실학은 이상적인 학문에 대한 갈망 속에서 규정된 통시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당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진실한 학문을 실학으로 지칭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본서에서 말하는 실학 개념의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학의 역사와는 구별된다.

본서가 제시하듯이 실학이라는 말은 '실'(實)이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만큼 역사상 복합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실'(實) 자에는 진실의 뜻도 있고, 실용의 뜻도 있다. 또한 채운다는 뜻도 있다(61~66쪽).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갖는 실학을 이해하는 데 『중용』(中庸)의 '중'(中) 자가 갖는 의미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용』에서 중(中)이라는 말은 단순히 중간이 아니라,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시의에 적중한다는 말이다.[1] 이것은 실학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진실과 실용 모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실'은 고정적인 내용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시의에 적중하는 것이 실학이라고 한다면 그 실학의 내용과 의미 또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하여 변화하는 실학 개념의 의미와 내용들을 통시대적으로 살펴보았다.

본서가 실학 개념을 통시대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기존 고유명사로서의 실학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실학을 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서는 "조선후기 실용적인 학풍이 일어나고 이를 '실학의 일어남' 등으로 제목을 달고, 그들의 학문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방법"(11쪽)을 불완전하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는다. 조선후기라는 특정 시대의 실학자들과 그들의 학문이 아닌, 통시대적으로 실학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시대의 범위는 여말선초부터 근현대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또한 논의도 실학이 인식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본서를 기존 실학 관련 연구와 구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서의 이러한 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서평은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의와 몇 가지 논점들을 제시함으로써 본서가 갖는 학술적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서의 내용: 실학 개념의 역사

본서는 모두 7장(1장 실학 인식의 세 층위-용어·개념·담론 / 2장 실학의 고전적 의미 / 3장 14~18세기 실학 / 4장 19세기 전반기 실학의 전개 / 5장 근대 전환기 실학 용례와 개념의 충돌 / 6장 일제 강점기 실학의 역사 개념화 / 7장 20세기 중·후반 실학

1 朱熹, 『中庸章句』 2章,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개념의 정립, 확장, 반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21세기 실학 풍경과 실학의 미래'의 제목으로 21세기 실학의 현황과 미래를 논하고 있다. 1장과 2장은 이끄는 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3장부터 7장까지는 시기에 따라서 실학 개념의 변모 양상을 논하고 있다. 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자의 입장에서 '실학 인식의 세 층위-용어·개념·담론'이라는 제목의 1장은 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서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부분을 통하여 독자들이 어떻게 본서를 읽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저자는 실학이라는 용어에는 변화하는 고유명사와 지속하는 보통명사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 고유명사로서의 실학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였다. 한국에서 14세기에 등장한 실학은 불교와 대립하는 성리학이었다. 15세기 이후에는 문학에 대립하는 경학의 의미를 가졌다면, 16세기 이후에는 경세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고유명사 실학의 의미는 변화하였다. 하지만 변화하는 고유명사 실학의 저변에는 보통명사 실학의 의미 또한 내재해 있었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보통명사 실학의 모토는 실학을 규정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학이라는 이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었다. 학문의 영역에서 진실에 대한 열망은 통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실학 개념에 주목한 이유로 실학이 근현대 서구에서 온 개념이 아니라 자생 개념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한 이유로 실학 개념은 한국사회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저자는 이러한 실학 개념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어휘의 의미 맥락을 중시하는 언어학의 의미장 이론에 주목하면서 실학을 둘러싼 다양한 연관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실학의 연관어들은 실학 개념의 의미와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저자는 근현대 실학 담론의 형성과정을 논하였다. 실학은 내재

적 발전론과 짝하면서 그 담론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내재적 발전론은 실학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내재적 발전론이 갖는 목적성 때문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을 통하여 조선후기 사회의 정체성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서양에 우리 역사를 맞추는 일종의 종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시선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외부 시선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내부의 원초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는 데 전근대와 근대를 관통하면서도 서양을 의식하면서 발전해 왔던 실학 개념은 매우 유용한 주제라고 설명하였다.

저자가 첫 장 말미에서 제기한 '이 책의 접근 방법'이라는 제목의 항목은 본서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저자는 실학을 '형성 중의 용어이자 운동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유동하는 개념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라는 개념사의 연구방법론으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저자는 본서를 '실학 개념의 형성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저자는 2장에서 '실'(實) 자와 실학의 의미 및 실학 용어가 등장하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고전에서 실(實)은 '넉넉함'에서 '참', '진리' 등의 다양한 의미망을 가졌으며, 이것은 실학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실(實)과 실학 용어는 송대 성리학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졌다.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를 허(虛)로 규정하면서 실(實)의 의미를 전유하고자 하였고, 실학 용어도 송대 성리학에서 용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리학자들은 실학을 성리학으로 인식하였다. 양명학에서 또한 실학의 의미는 허에 대한 배격이라는 측면에서 성리학과 동일하였지만, 일상에 대한 관심은 한층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실학 용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이용후생(利用厚生), 개물성무(開物成務),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세치용(經世致用)과 같은 표어들 또한 실학의 정신과 지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표어들은

실학과 연관되면서 실학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장과 2장에서 본서의 문제의식과 방향을 설명한 뒤, 저자는 한국사 속에서 실학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3장은 14~18세기 실학 개념의 역사를 다루었다. 저자는 우선 조선시대 실학 용어의 사용빈도와 공기어(共起語)들을 통하여 조선시대 실학의 다양한 용례들을 개관하였다. 이어 14세기 후반~17세기 실학 용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진실된 학문으로서 실학이 갖는 다양한 의미 맥락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학 개념이 경학(經學), 성리학(性理學), 성학(聖學), 경세학(經世學)과 같이 다양하게 인식되었음을 밝혔다.

18세기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다루어 실학 개념의 역사에서 이 시기가 갖는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18세기는 현재 실학 연구에서도 주요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실-실학 관련 용어들은 18세기에 분명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당대 학문과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이 비판과 반성의 과정에서 과거의 이상적인 가치를 찾고자 하는 고도(古道)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담은 용어들로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 이용후생, 개물성무, 실사구시가 제시되었다. 실학 개념과 고도와의 관련성이 깊어진 것이다. 실-실학 관련 용어들과 고도 회복의 노력들이 만나는 것은 양득중을 거쳐 성호학파, 박지원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경세학에 대한 관심이 성호학파, 박지원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등장하면서 실학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먼저 성호학파는 실-실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경세적 지향을 분명히 하였다. 성호학파의 학술은 고도를 지향하면서 성리학과 거리를 두었고 실천과 박학(博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저자는 박지원과 박제가의 실학 논의도 소개하였다. 박지원은 학문의 실용성을 주장하였고, 박제가는 이용후생을 통하여 서학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정조의 실학 담론은 어떠하였는가? 정조는 실-실학의 인식에 있어

서 실용을 중시하며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성리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저자는 4장에서 19세기에 전개된 다양한 실학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19세기 들어서 실학 관련 용어의 사용빈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용어 사용에서도 별다른 특이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경향도 나타났다. 이 시기 활발히 논의되었던 한학(漢學)과 고증학(考證學)이 실학 담론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실사구시는 그 연결고리가 되었다. 고증학은 실학의 맥락에서 보면 실증, 실용을 의미하였다. 양명학과 명물도수(名物度數)의 학문도 이 시기 실학의 담론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강화학파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심대윤은 실(實)을 이익(利益)으로 보기도 하였다. 명물도수의 학문을 가학(家學)으로 표방한 소론 서명응, 서형수·서호수 형제, 서유좌·서유구는 수학과 역법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 그들은 실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무실(務實), 실용(實用)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남병철, 남병길 형제는 수학과 천문학에 천착하였고 이것을 실학으로 지칭하였다.

19세기 실학 논의에서 정약용과 최한기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정약용은 다산학이라고 이를 만큼 자신만의 독특한 학문체계를 구축한 인물이었다. 그는 실학이라는 용어를 1회 정도 언급하는 등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학문에는 원시유학, 성리학, 경세학, 박학과 고증학, 서학 등이 보였고, 이후 그는 실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었다. 서양의 과학을 적극 수용하였던 최한기의 실학도 주목된다. 당대의 학문을 허무학(虛無學)으로 비판하면서 표방된 그의 실학은 기학(氣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5장은 근대 전환기의 실학 용례와 개념의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실학의 용례는 대체로 유학의 영향력 내에 있었지만, 19세기 후반에 실학의 의미는 급격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서양과의 문명적 충돌과 수용의 과정이 있었다. 실록과 신문과 잡지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시사하는 실업과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신조어들이 실학의 공기어로서 등장하였다. 반면에 유학자들 또한 실학을 자신들의 유학 사상 속에서 여전히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당시 실학을 둘러싼 신구학문의 대립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실학과 관련하여 한중일 삼국의 지식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한국의 개화파, 중국의 량치차오,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례를 통하여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실학 관념을 논하였다. 이들의 실학 논의에는 서양이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서양과 실학 개념과의 관련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저자는 실학을 둘러싼 다양한 의미들의 확장과 그것들 사이의 충돌을 동도서기론, 신학문, 유학 부분에서 살펴보았다. 동도서기론은 서양의 기술과 동아시아의 이상적인 고대 정신을 조화롭게 융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점차 유학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학 수용의 입장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동도서기론에서 실학 개념은 근대 신지식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것은 서양문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신학문의 논의와 연계될 수 있었다. 신학문의 실학 개념은 서양 과학의 의미를 강하게 가졌다. 한편, 유학자들에게도 실학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였다. 유학자들은 실학을 대체로 유학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였지만, 새로운 내외의 변화에도 일부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자는 6장에서 일제강점기 실학의 역사 개념화 과정을 실업 교육, 조선학, 근대 담론과 관련해서 다루었다. 19세기 말에서 일제강점기 초기 실학 개념은 실업과 과학 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인 힘을 갖지는 못하였다. 실학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영역은 조선학, 개혁, 근대성과 관련해서였다. 국망 이후 근대와 실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잠시 주춤하였지만, 곧 다시 시도되었다.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의 실학 개념은 여기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실학은 조선학에서 출발하여 근대성을 찾고자 하는 노

력으로 이어졌다. 조선학과 실학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국망 이후 훼손된 자신감의 회복을 도왔고, 이를 토대로 다시 근대성의 문제에 접근해갔다. 최남선과 정인보는 이러한 실학 개념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최남선은 조선후기에 일어난 조선의 자아를 각성하는 신학풍으로 실학을 인식하였으며, 정인보는 실학을 조선학을 넘어서 보편학을 지향하는 의실구독의 학문[依實求獨之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1930년대 들어 실학 개념의 외연은 더욱 다양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30년대 중반 다산 서거 100주년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다산학의 재조명은 실학 개념 형성에서 한 획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실학 개념은 근대성 문제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실학은 당대 비판과 개혁,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당시 문제의식과 짝하면서 그 외연을 확장해갔다.

저자는 7장에서 20세기 중후반 실학 개념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해방 후~1960년대 실학 연구는 발전 패러다임과 조응하면서 진행되었다. 해방 후 주요 한국사 서술에서 실학은 조선후기 학문사조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설명 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58년 10월 역사학회가 주최한 실학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는 국가 발전이라는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발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자본주의와 근대성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자본주의 맹아론은 이 시기 실학 연구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천관우, 김용섭, 이우성, 이광린은 실학을 조선후기 사회발전과 관련한 사상체계로 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조선후기 사회가 정체되어 있었다는 논의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학 논의는 주체성 확립·근대화 건설과 깊은 관련성을 가졌다. 이렇게 성립된 실학 개념을 통하여 실학 연구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국어학, 철학, 민속학, 경제사학, 미술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1970년대에 실학 연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실학 연구가 확장되는 이면에는 실학의 통속화 및 오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실학 개념은 그것이 기초하는 역사적 맥락과 거리가 먼 분야에까지 확산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실학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점차 기존에 중점을 두었던 근대성의 문제와는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실학 연구가 전개되어 간 것이다. 실학 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기존 실학 개념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및 비판 또한 나타났으며, 실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회도 설립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학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론에서 저자는 21세기 실학의 풍경과 실학의 미래를 논하였다. 저자는 실학이 지역 사회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상황과 이어 실학 연구의 현황 및 실학의 열린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저자는 21세기 실학 연구는 20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탈근대 혹은 동아시아 근대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학을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 경향들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담론의 관점에서 실학 관련 논의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저자는 실학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근대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된 실학 연구는 그 시효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가능성 또한 제시하였다. 처음부터 실학의 발화지점은 복수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미래의 실학 연구 또한 다양한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근현대 한국에서 설정된 실학 개념 또한 역사상 존재하였던 많은 실학 논의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실학 논의 또한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저자는 그것의 전제로 진실한 학문을 목표로 할 것을 들었다.

3. 새로운 실학 논의의 모색

현실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다. 따라서 기억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기억은 어떠한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기억하려 할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기억 주체의 선택이다. 문제는 왜 기억 주체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가이다.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기억 주체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역사학도 크게 볼 때 기억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2]

실학 논의들 또한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억과 선택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선택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실학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기초하는 상황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한다.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실학으로 선택하여 인식하는가이다.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실학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유의 체계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유의 체계야말로 역사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유의 체계는 생각의 회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식론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실학 논의는 어떠한 것을 실학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혹은 인식하는 인식론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오랫동안 탐구하였던 실학 논의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실학 논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개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실학 개념이 갖는 다양한 맥락

---

2 이 문단에 서술된 기억의 성격과 역사학과의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는 황보영조(2017), 『기억의 정치와 역사』, 역락, pp. 20-30을 참조.

들과 의미들을 천착하였다.[3] 저자는 본서를 통해 실학 개념의 역사, 용례 등을 고찰하면서 실학 개념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정리과정에서 한국사에만 논의를 한정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사례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주목한 개념의 역사는 개념을 정태적이고 고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개념의 상대성과 역동성을 살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개념의 상대성과 역동성을 부각함으로써 절대적인 개념이 존재할 수 없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념의 역사는 개념을 규정하는 유동적인 인식 주체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 책은 실학자들과 그들의 학문이 주인공이 아니다. 실학이란 말 자체 그리고 실학이란 말을 발화(發話)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12쪽)라고 말하였다. 조선후기라는 특정 시대의 실학자들과 그들의 학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통시대적으로 논의되었던 실학이라는 말과 그것을 언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본서의 중요한 길잡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학의 정의를 내리거나, 실학자의 정체성을 실증하거나, 그들의 계보를 검증하는 작업 등은 이 책의 출발도, 목적도 아니다."(52~53쪽)라는 말 또한 본서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정된 의미에서 실학의 정의와 실학자의 정체성을 전제하는 것은 개념의 유동성과 가변성에 주목하는 개념사의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

3 이경구(2020), 「조선시대 실학 용법에 대한 거시적 일고찰」, 『개념과 소통』 26; 이경구(2015),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중·일 삼국의 실학 개념」, 『개념과 소통』 15; 이경구(2014), 「18세기 말~19세기 초 지식인과 지식계의 동향」, 『한국사상사학』 46; 이경구(2012), 「조선후기 주자주의의 동향과 이용후생 개념의 부상」, 『개념과 소통』 10; 이경구(2012), 「개념사와 내재적 발전: '실학'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3.

4 개념사에 대해서는 라인하르트 코젤렉(2007), 한철 역,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박근갑 외(2015),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참조.

실학이라는 말과 실학의 발화자들이 본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무엇인가를 실학으로 명명하는 과정과 그 과정의 행위자인 인식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에 본서의 실학 논의는 앞서 제시한 인식론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본서는 어떤 인식 주체들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필요에 따라서 실학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연구사 속에서 실학 개념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실학 논의의 중심이었던 조선후기 실학 개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조선후기 실학은 조선후기 당대적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근현대의 어떤 필요와 선택에 따라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후기 실학은 역사적 실체가 아닌 허구적인 것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5] 본서는 이러한 실학 개념 논의에서 비켜나서 새로운 실학 연구를 제안한다.

본서는 실학은 어떠한 특정 시대에 존재하였던 특수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통시대적으로 존재하였으며 끊임없이 재정의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실학을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인식하였다면, 실학을 통하여 그 시대와 사람의 지향점을 거슬러 알 수 있다. 실학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학이라는 말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서는 실학 개념을 통해서 구현된 이상적인 학문 정신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실(實)의 역사, 학(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실학 용어가 여전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며, 나아가 새로운 학술사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다. 이 점은 본서의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된다. 평자는 본서의 이러한 실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점에서 새로운 연구시각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개념사적인 접근은 실학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5 김용옥(1990), 『讀氣學說』, 통나무, pp. 18-44.

다. 이에 평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함으로써 서평의 형식을 갖추고자 한다.

첫째, 실학 개념 규정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적 상황에 대한 부분이다. 각 학문 주체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실학이라고 할 것이며, 자신들과 경쟁하는 학파 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학파를 허학(虛學)으로 규정할 것임은 자명하다. 실학이라는 명명에는 이미 어떤 것을 허학이라고 가정하는 뜻이 내재해 있으며, 따라서 실학의 역사 이면에는 허학의 역사도 동시에 존재한다.[6] 그렇다면 이 실학의 의미는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므로 갈등적 상황과 필연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학문을 실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하면서 타자와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실학이라는 말은 학문의 헤게모니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의 형성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적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갈등 관계를 적극 드러냄으로써 개념사는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7]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서에서 더 많은 고찰과 서술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학 개념을 놓고 벌이는 학문 주체들 간의 정치·사회적 갈등 관계가 더욱 상세하게 제시된다면, 실학의 역사를 학문의 정치·사회사라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실학 관련 용어의 확장과 제한에 관한 부분이다. 실학을 진실한 학문으로 이해할 경우, 어느 시대와 장소에도 실학적인 의미와 맥락은 존재하였을 것이다. 비록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명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학적인 맥락과 의미를 갖는 용어들은 있었을 것이다. 진실한 학문을 찾기 위한 노력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

---

6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2011), 「실학개념 논쟁과 그 귀결」, 『한국사시민강좌』 48, p. 23 참조.

7 이러한 개념 규정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라인하르트 코젤렉(2007), p. 129 참조.

다.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실-실학 용어가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실학적인 문제의식의 부족함이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갖는 표현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 진실한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균질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실학적인 맥락과 의미들을 더 넓은 범위에서 찾아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실학 관련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진실한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실학 관련 용어를 너무 확장해 버리면 실학 용어가 갖는 중심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진실한 학문으로서 실학적인 맥락과 의미를 갖는 용어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면, 실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어느 정도까지 집중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학 관련 용어의 확장과 제한은 많은 점에서 문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셋째, 실학이라는 말이 가졌던 사회적 영향력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진실한 학문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실학 이외 다른 경쟁 용어들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진실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진학(眞學), 진절학문(眞切學問), 진학문(眞學問)이라는 말이 실학과 비슷한 용례로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8]

---

8 張顯光, 『旅軒集』 卷11 「祭徐樂齋文」. "公之知有眞學, 非不夙也."; 李植, 『澤堂集』 卷4 「李正言德先 尙馨 以數學 見左於時議 書此以解之 二絕」, "若言理數非眞學, 從此金華乏俊賢."; 安鼎福, 『順菴集』 卷6 「與權旣明書 甲辰」. "今之儒者斥二氏爲異端, 而反以此爲眞學, 人心之惑溺, 一至於此.";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35 「蕙寰」. "徒講非眞學, 君子貴修身."; 李家煥, 『錦帶詩文抄下』 「禮谷實紀序 郭趄」. "讀公遺事, 可以知高談性命, 臨事無措者, 非眞學問也."; 崔漢綺, 『人政』 卷11 「事務眞學問」. "凡百事務, 皆是眞切學問, 捨事務而求學問, 乃懸空底學."; 崔漢綺, 『人政』 卷12 「用學有時」. "遇而爲當世所用, 不遇而待後世所用, 眞學問也."; 郭鍾錫, 『俛宇集』 卷115 「答洪敬禹 載夏○壬子」. "日用常行, 便是目下親切, 人道不外是矣. 讀書講理, 乃所以求此也. 卽而踐實, 斯爲眞學. 惟益加勉勉而毋自少焉."; 郭鍾錫, 『俛宇集』 卷124 「答李忠道 戊午」. "日用之間, 自有平常明白底道理, 造次謹信, 不敢率意妄行, 此便是眞學問."

실학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상적인 학문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고학(古學), 정학(正學), 도학(道學) 또한 부분적으로 경쟁 용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홍대용은 고학, 실학, 정학을 병렬하여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141~142쪽 참조). 실학과 이러한 용어들과의 상관관계 혹은 경쟁 관계는 당대 사회가 필요로 하였던 이상적인 학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학 용어의 시대적 추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용어들과의 상대적인 관계성을 시대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실학 개념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다양한 시대적 의미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실학이라는 말 또한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첫째 실학 개념 형성 과정에서의 갈등과 학문 헤게모니 문제, 둘째 실학 관련 용어의 확장과 제한의 문제, 셋째 실학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들 사이에서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평자는 실학 개념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긴장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에 대한 고찰은 실학 개념이 가졌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본서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저자의 의도를 오독하였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평자로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실학 연구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서는 실학 개념의 관점에서 조선과 근현대 한국의 지성사를 일관되게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학술사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또한 본서는 개념사로서의 실학 연구를 통하여 개념사뿐만 아니라 실학 연구에도 새로운 연구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본서의 매우 중요한 성취이며, 본서가 충분히 주목되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된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21세기 신실학 연구를 제창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진실한 학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통시대적인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하면서 이 공통의 현상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실학이 논의되었던 이유라고 하였다. 저자의 이러한 언급은 실학이 실학이 된 소이(所以)에 집중하자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역사상 실학 개념은 고정된 형체를 갖지 않고 유동적이었으며, 따라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실학의 소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그 소이를 진실한 학문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저자의 지적은 21세기 실학 연구의 방향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郭鍾錫, 『俛宇集』.
李家煥, 『錦帶詩文抄下』.
李德懋, 『青莊館全書』.
李植, 『澤堂集』.
安鼎福, 『順菴集』.
張顯光, 『旅軒集』.
朱熹, 『中庸章句』.
崔漢綺, 『人政』.

2. 논저

김용옥(1990), 『讀氣學說』, 통나무.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라인하르트 코젤렉(2007), 한철 역,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박근갑 외(2015),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이경구(2012), 「개념사와 내재적 발전: ‘실학’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3.
이경구(2012), 「조선후기 주자주의의 동향과 이용후생 개념의 부상」, 『개념과 소통』 10.
이경구(2014), 「18세기 말~19세기 초 지식인과 지식계의 동향」, 『한국사상사학』 46.
이경구(2015),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중·일 삼국의 실학 개념」, 『개념과 소통』 15.
이경구(2020), 「조선시대 실학 용법에 대한 거시적 일고찰」, 『개념과 소통』 26.
조성산(2011), 「실학개념 논쟁과 그 귀결」, 『한국사시민강좌』 48.
황보영조(2017), 『기억의 정치와 역사』, 역락.